

# 대상, 대표이사 임동인 사장 선임

## 대상식품 합병 후 시너지 효과 기대 ... 동서산업 대표이사 김상환

대상은 1월6일 이사회를 열고 임동인 동서산업 대표를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임동인 대표(59)는 이리 남성고와 한양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1974년 대상에 입사해 전분당사업본부 부산공장장, 전분당연구소장 등을 거쳤으며 2004년부터 계열사인 동서산업에서 근무했다.

임동인 대표는 인화와 윤리경영을 중시하는 전문 경영인으로 전분당사업을 대상의 핵심주력사업 중 하나로 키우는데 기여했으며, 동서산업을 빠른 시간에 정상 궤도에 올려놨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상은 3월 대상과 대상식품이 합병된 뒤 시너지를 창출하는데 임동인 대표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대상그룹 계열사인 동서산업은 1월6일 대표이사로 김상환(48) 대상홀딩스 총괄중역 전무를 임명했다.

김상환 대표는 조선대 화학공학과 출신으로 1981년 대상에 입사한 이래 식품영업본부 영업부장, 건강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화학저널 2006/01/09>